

한전 등 전력그룹사 긴축재정에 나주혁신도시 경제 '흔들'

나주 상가 공실율 39.7% 전국 2번째...정주민구 3만9459명 뿐 법인카드 사용 줄이고 구내식당 이용 높아져...주변 상권 침체 버스킹 축제·동호인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상권 활성화 방안 필요

“코로나19때보다 더 힘이 듭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니 그 영향이 고스란히 상권으로 변질 수밖에요.”
나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한 달간 상가를 보겠다고 찾아온 이가 단 한명도 없다”며 “혁신도시 상권 내에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식당이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카페, 노래방 등 다

양한 업종에 도전했지만 모두 빚만 떠안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여는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정주민구도 더 이상 늘지 않고, 공기업은 혁신도시 내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어 상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푸념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민구가 목표치인 5만 명에 이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른 데다 최근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계열사들이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시 빛가람동 인구는 올 6월 말 기준 3만9459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4만9499명의 79.7%에 불과하다. 전년도보다도 고작 0.3%(253명)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가족동반 이주율은 69.8%로 전년도 70.9%보다도 감소했다.
사는 사람이 적으니 상권은 발달은커녕 정체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통해 올 1분기 전국 7개 혁신도시 상권(집합상가) 공실률을 살펴본 결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실률은 39.7%에 달했다. 김천혁신도시(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7개 혁신도시 평균 공실률(28.1%) 크게 상

회하는 수치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허덕이던 전년도 같은 기간보(39.2%)보다도 0.5%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상권에 드리운 그림자는 전력사 적자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기업들이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다.
한전만해도 25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고 이외 기업들도 비상경영 다짐대회를 여는 등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이 기업들이 자구안과 함께 정부와 관계부처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것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8년차 한전 직원 B씨는 “아무래도 법인카드 이용

은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고물가 영향도 있어, 점심시간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보다 3800원 짜리 구내식당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최근 나주시와 만나 이같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상인들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주 1회 휴무제 시행’을 나주시에 적극 요구했다.
남양식 빛가람동혁신도시 상가변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빛가람동 여가·스포츠 동호인 대회 유치, 호수공원 경관 활용한 주말 무료 야외 결혼식장 운영, 버스킹·축제 행사 개최 등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기업의 소비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완화된 지시를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0일 초복을 앞두고 광산구 도산동 행복나루노인복지회를 찾아 여름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러브펀드 400만원을 복지관에 후원하고, 광산구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한전KDN, 대한민국 환경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자원 순환 활성화 기여 등

한전KDN은 최근 열린 '제18회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친환경 경영과 미래개발사업, 자원순환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한전KDN은 효과적 자원 활용과 순환 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집중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바탕으로 임직원 및 국민참여형 'KDN Eco-Life'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폐전산제품에 대한 친환경 처리·재활용을 위해 지역과 함께 E-Waste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호남지역 최초의 Eco-Zone 운영, K-헬스케어 APP 개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 예측 시스템, 스마트시티·산단 구축 등 환경경영을 실천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ICT기반 미래개발사업 확장 등 중소기업과 국민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국민지향적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등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일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나주시는 작년 12월 베트남 비탄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돼 약 250여 명의 근로자가 일손을 돕고 있다.
공사는 농어민과의 의사소통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한국능력개발원과 협력해 고구려대학교 소강당에서 나주배원에농협 소속 베트남 소속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 생활·문화 이해 등을 교육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 제



고, 나아가 교육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공사 해외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선택 아닌 필수”...한전KPS, ESG경영 교육

중소협력업체 초청 정보 전달

한전KPS는 중소기업체를 초청해 ESG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7일 본사 대강당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한 35개 중소기업 6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발전산업계 중소기업들의 ESG경영 수준을 높이고 지속성장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ESG 경영의 기본이해부터 체계적인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핵심정보를 전달받고 우수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 프로그램은 ▲ESG 정책동향 ▲탄소배출 관리 및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경영 구축방안 ▲공급망 관리 동향과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등 ESG 핵심이슈를 다루는 특강으로 구성했다.
김흥연 사장은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와 글로벌 교역 체제 재편으로 인해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한전 KPS는 발전정비산업 선도기업으로서 공급망 내 ESG 관리강화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